

NH전북지사, 1년만에 본부체제로 회복

전북경제 · 미래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성과 이뤄내 내년 1월 2일부터 승격 운영... 도민들에 감사한 마음 전해

한국토지주택공사(CEO 이준준)는 내년 1월 2일부터 전북지사를 본부로 승격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NH전북지사는 지난해 12월 LH혁신방안에 따라 사업 물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강원, 충북, 제주와 함께 지사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이에 250여 LH전북 임직원은 올해 안에 본부체제를 반드시 이뤄낸다는 각오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물량 확보,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적극행정, △전북 백년대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소통 등을 사력을 다

해 추진해왔다.

전북경제와 미래를 함께한다는 NH전북의 다부진 각오는 2023년 국토부 공모 선정된 원주 수소특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LH사업참여와 익산망기·완주삼봉2 공공지원 민간입대 사업의 추진과 물론 전주역세권·가련산 지구에 대한 전주시의 사업협의의 지속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또한 도민신뢰 회복을 위한 LH본연의 역할 강화는 약15천호의 건설(영구·행복주택등)·매입(다가구주택등)·전세임대주택과 익산평화 공공

주택 약1천호 공급·관리는 물론 입주민이 체감하는 LH최초·최다주거복지서비스 발굴 및 추진의 원동력이 되었다.

2023년 LH전북의 주거서비스는 LH최초 1년 365일 끊임없는 운수공급을 위한 중앙난방보일러 관리시스템 변경, '중증장애 세대를 위한 맞춤형 화재대피 시설 구축' 등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주택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입주민들은 "청각장애인이란 소리를 잘 못들어 화재시 대피가 늦을까봐 자식들이 늘 걱정이었다. 최근에 LH가

설치해준 시각경보형 화재경보기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 LH에서 설치해준 소화기는 가볍고 사용이 편리해서 우리 같은 장애인이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LH전북 관계자는 "본부체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 덕분에 올해 초 LH전북 지사장의 내년에는 2대 지사장이 아니라 다시 본부장이 임용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이루어 졌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고객이 먼저 찾는 은행 발돋움할 것”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제8대 이정환 본부장 취임

이정환 제8대 신임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취임식을 갖고 신년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으로도 농업인과 전북도민의 곁을 함께 지키는 지역중심형 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객 관리 강화 △현장중심 경영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 등 5대 경영방침을 밝혔다.

이정환 신임 본부장은 일선 현장과 본부 여신심사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여신 부문에서 전문성과 탁월한 영업력을 발휘해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안정적인 조직경영 리더십을 갖추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임 이 본부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95년 농협에 입사해 전주산업단지지점장, 기업개선부장, CB 심사부장을 역임하고 금년 정기인사에서 제8대 본부장으로 부임했다.

/김옥기 기자

전전협 전북도회, 어려운 이웃 · 지역인재 위해 6600만원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는 도내 어려운 이웃과 지역인재를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협회는 11월 17일 전북도를 시작, 지난 27일 남원을 끝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방문하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총 6,6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전쟁과 분쟁으로 불안한 국제정세 등으로 물가 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도내 3천여 전문건설업체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익산시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십시일반으로 시행한 금번 성금전달은 협회는 늘 지역과 공존하며 상생발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비단 금번 성금전달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에도 전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에 성금과 물품 등을 전달하는 등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회는 이웃돕기 지원사업과 전문건설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행사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잘 사는 전라북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 동서 · 남북도로 개통

새만금개발청, 동서 · 남북도로 발판으로 경제도시 변모 생산유발효과 2조 1881억원 · 고용유발효과 1만 5734명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가속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기반시설)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가 올해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서·남북도로는 총사업비 1조 3896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중심을 십자형(+)으로 가로지르는 43.6km의 내부간선도로로 2015년 11월 첫 삽을 뜬 이후 7년 9개월 만인 지난 7월에 전면 개통됐다.

물류수송의 교통축으로 활용되는 가로축인 동서도로(16.5km)는 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15분대로 연결하며, 세로축인 남북도로(27.1km)는 군산에서부터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여 부안까지 20분대로 연결해 주는 중요 간선도로이다.

동서·남북도로는 새만금 내·외부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새로운 일지리를 창출하고,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동지를 둔 기업의 발전을 돕는 등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도로 건설사업의 경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 1881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5734명에 달하며, 현 정부 들어 새만금의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에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2025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2026년 신항만이 개항되면 동서·남북도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물류·교통망이 형성됨으로써,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경제도시로 변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하나의 핵심 인프라인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2024년 예산이 127억 원 확보됨에 따라, 2027년부터 입주하는 스마트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이 한층 개선돼 입주수요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 간 연결도로는 총사업비 1조 1293억원을 들여 새만금 2·3권을 연결하는 20.7km의 6차로 도로이며,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경안 청장은 "깊이 뚫려야 사람과 돈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듯이 동서·남북도로 완성을 발판 삼아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가 경제를 이끄는 첨단산업의 퍼스트무버(선주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상국립대,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권순기)는 27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농수산식품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으로 먹거리 탄소중립 등 ESG 가치 확산 △농수산식품 분야 미래인재 육성과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협력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 교류 △안전한 공공 급식으로 학생건강 제고와 급식산업 활성화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경상국립대의 인재상인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혁신과 상생의 개척 정신을 담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실천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도민 홍보 · 성공 기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 임직원 약 20여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 가입에 동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고 성공적인 출발을 염원하는 전북도민의 열기를 고취하고자 마련된 특화상품이다. 전북 도민 누구나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1년, 가입 금액은 월 5만~50만원 이하, 최고 연 5.5%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및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는 동행적금에 가입하게 되어 기쁘다. 도민 여러분들도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기원과 이을 높은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바이오진흥원 임직원 약 20여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 가입에 동참했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에 맞춰 그린바이오 기반 바이오 융합 영역 확

장, 지역 대표기업 육성, 수출 전담 지원조직 신설 등 다방면에서 생명·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